

기독교발견교리 대책위원회 보고서 요약문

새 가족 창조: 기독교발견교리 대화 모임

2015년 11월

기독교발견교리(Doctrine of Christian Discovery)는 죄의 파괴가 북미주 식민 역사와 후대 유산 안에 나타난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 파괴의 역사적 결과를 다루면서 기독교발견교리가 아직도 우리 나라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을 결정하는 방식을 규명하고자 한다. 개혁주의 신자인 우리는 만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마음에 죄가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화해시키려고 오셨다는 신념을 분명히 밝힌다. 그런 명료한 신학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집단역사에서 저질러진 파괴를 분별·대응하는 여정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본 보고서가 기독교발견교리가 우리, 즉 북미주의 원주민들과 정착민들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친 것을 인정함으로써 화해·정의를 위한 대화·분별·행동을 위한 지속적 모임에 초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우리는 구조악의 실타래의 일부인 기독교발견교리의 역사를 추적하고 15세기 유럽인이 도미하기 전에 북미주 땅은 *무주공산(terra nullius)*이었고 그 원주민들은 하등인류였다는 역사적 거짓말을 수용하는 교회·사회의 *타락한 사상*을 추적한다. 그 타락한 사상 때문에 정착민과 다수자 문화는 원주민 부족·문화 안에 생생한 진리와 미덕에 눈이 멀었고, 유럽 선교사들이 도착하기 전에 그 땅의 부족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일반은총이 임재했었다는 사실에 무관심했다.

대책위원회(task force)로서 우리는 창조와 타락, 구속, 화해 전반에 대한 개혁주의적 이해를 반영하는 접근법을 취했다. 우리는 접근방법을 대화모임에 집중시킴으로써 화해 여정의 일부를 체험했다. 본 대책위원회는 다양하게 혼합된 원주민들과 소수자 공동체의 정착민들, 유럽계 정착민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복을 누렸다. 우리는 총회의 요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임을 가졌고 서로를 친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새로운 가족으로 대하며 경청하는 법을 배웠다.

우리는 공유된 역사를 토론하면서 신중하고 의도적인 언어를 사용했다. 예를 들면, 발견 이론(Doctrine of Discovery)이란 용어가 통용되는데 그 정식명칭은 “기독교 발견 교리(Doctrine of Christian Discovery)”다. 대책위원회로서 우리는 기독교발견교리가

기독교세계에 차지하고 있는 신학적·역사적 근거를 더 명확하게 지시하는 정식명칭을 사용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토착부족들을 언급할 때 가능한 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명칭을 조심스럽게 사용할 것이다.

교리발견 대책위원회가 받은 요구는 기독교발견교리가 어떻게 그리고 왜 나타나게 되었는지 조사하고, 그것의 생성·전파에 교회·유럽계의 사회적/문화적 태도가 미친 역할을 분별하고, 그 교리가 캐나다와 미국의 정복기 때 원주민 부족들에게 미친 주요 결과들을 논의하고, 원주민 부족들에게 미친 (즉 관련법이나 문화적 자세 등과 같은) 지속적 영향을 밝혀내고, 미국과 캐나다의 유력한 유럽계-정착민 문화에 미친 영향을 분별하고, 특히 서로 관계를 맺고 사역하는 방식에 미친 영향력을 분별하는 것이다.

#### 기독교 발견 교리: 북미 역사

기독교발견교리는 인종서열을 법체계로 성문화하는 원칙을 설정함으로써 식민지화를 정당화하고 유럽계 크리스천 국가들에 권력을 부여했다. 주지하다시피 1452년 니콜라스(Nicholas) 교황이 *뉘 디베르사스(dum diversas)* 교서를 발표하면서 기독교발견교리가 시작되었다. 이 교서는 “기독교” 국가들이 “이교도” 민족들보다 우선적으로 법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원칙을 암암리에 주입시켰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법의 원천이었던 “기독교왕국 시대”에 이 모든 게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한 교권주의 문서가 국제법으로 공인되었다. 이 법은 1455년 *로마누스 폰티펙스(Romanus Pontifex)* 교서를 통해 재천명되고 전세계로 확산되었다. 1493년 *인테르 캐테라(Inter Caetera)* 교서는 기독교발견교리를 북미주 상황에 맞추는 틀을 개발했다. 하지만 이 교리를 개발할 때 바티칸은 수백년 묵은 인종차별적 타자화와 성경왜곡의 추세에 의존하여 타문화권을 인간 이하로 치부한 세계관을 정당화했다. 이 논리가 중세 십자군을 지지했다. 이 논리의 근원은 주후 312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공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식민지 시대에 기독교발견교리는 주로 토지 획득과 원주민 주변인화, 노예무역 확산을 정당화하는 세속적 도구로 변신했다. 현장의 권력관계와 신흥 친족관계의 실재들이 원주민 부족들과의 복잡한 관계를 언급했지만, 기독교 신학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진 인종우월주의 이데올로기는 지속되었다.

13 개 식민주에서 음성적 토지투기로 점점 악화되고 불안해지는 정치 상황에 직면한 영국 왕은 1763 년 국왕 포고령(*Royal Proclamation*)을 선포했다. 이 포고령은 원주민들로부터 토지를 획득할 수 있는 규칙을 문서화함으로써 협상절차를 규범화하려는 의도로 발표된 것이다. 포고령의 두 가지 핵심 조항은 애팔래치아 산맥 서부의 토지가 “인디안 구역(Indian Territory)”이며 영국 왕만이 원주민들로부터 땅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영국 왕에게 땅 투기 독점권을 부여했다. 그러므로 국왕 포고령은 북미주 대부분에 걸친 조약체결의 첫 단계였다. 이것은 명백한 운명론(Manifest Destiny: 미국의 제국주의적 식민지 확장을 지지한 이론 - 역주) 즉 서부 확장과 그 땅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소유라는 전제를 시민적 정체성의 핵심으로 여겼던 식민지 정착민들을 모욕하는 처사였다. 궁극적으로 1763 년의 국왕 포고령은 미국 독립전쟁의 주요 동기가 되었다. 원주민들은 포고령을 1764 년 나이아가라에서 체결한 원래 부족들 (First Nations)과 대영제국 간의 신성한 조약의 일부로 보았지만 대영제국은 포고령이 대지에 대한 국왕의 주권을 부여하고 원주민들이 땅을 팔 수 있는 대상을 제약한다고 전제했다. 이 궁극적 군주권 전제는 암묵적으로 기독교발견교리에 호소하고 있다.

최고재판관 존 마샬(Chief Justice John Marshall)이 1823 부터 1832 년 사이에 판결한 세 번의 소송을 통해 기독교발견교리는 교황칙서와 인종차별 세계관에서 미국 연방법으로 변신했다. “마샬의 삼부작(Marshall Trilogy)”으로 알려진 이 판례들은 지금도 미국 인디안 정책의 근간으로 남아 있으며 세계 도처에서 법적 판결에 인용되고 있다. 이 판례들의 핵심사상은 원주민 부족들에게 합법적 “개인(persons)”의 권리가 없고 고로 자기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개념이다. 여기서 나온 판례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기독교발견교리는 법적 소송과 정책 결정을 통해 캐나다 법률과 정책에 등장하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법적 판례는 1888 년 세인트 캐터린 제분소 대 대영제국(*St.*

*Catharine's Milling v. The Queen*) 사이에 진행된 소송이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원주민의 토지소유권과 협상권리를 무시하고 토지자원의 권리를 채굴업자들에게 넘겨준 것이다. 그것은 마샬 법정이 정교하게 만든 기독교발견교리를 활용하여 땅과 자원을 강탈하는 식민정책을 정당화한다. 또한 이런 논리는 개인(person)을 “인디안이 아닌 개인(individual)”으로 기발하게 정의한 그 유명한 캐나다 인디안 법령(Canadian Indian Act)에도 기여했다.

기독교발견교리는 아직도 북미주 전반의 법적·사회적 실체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약들과 법률 소송들은 여전히 19 세기의 발견 개념으로 성문화된 규범에 의존하고 있다. 기독교발견교리는 법률 소송 특히 토지의 사용권·소유권 소송에서 여전히 인용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2005 년 뉴욕 주의 셰릴시 대 오네이다 인디안 부족 간 소송(*City of Sherrill v. Oneida Indian Nation of New York*)에서 긴스버그 판사(Ginsberg)가 발견이론을 적용하여 오네이다 부족의 토지구매에 관한 미국정부의 주권을 옹호했다.

최근 기독교발견교리를 다루는 범세계적 운동이 성장했다. 2006 년 6 월 인디안 법률자원 센터(Indian Law Resource Center)는 특별인권 보고자(Special Rapporteur)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기존 토지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국가들이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미국은 그 국가들에 속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미국의 입장은 기독교발견교리의 유산이다. 2012 년 UN 의 원주민 문제에 관한 영구적 포럼(Permanent Forum on Indigenous Issues)은 기독교발견교리와 그것의 지속적 영향을 특별주제로 다루었다. 2008 년 캐나다 정부는 기숙학교(Residential Schools) 운영에 관여한 것을 사과했다. 또한 진실과 화해 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는 기독교발견교리 유산에 관련된 구체적 부조리의 일부를 폭로했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기독교발견교리의 전제들을 연구하고 거부해 왔다. 여기에는 성공회, 감독교회, 경건한 친구회(Religious Society of Friends 퀘이커교도: 역주) 및 그리스도 연합 교회(UCC)가 포함되어 있다.

타락, 제 1 부: 신학적 부조화

기독교발견교리는 비기독교·비유럽인을 인간 이하로 간주하는 최악되고 타락한 사상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이 타락한 사상은 만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기독교의 기본원리에 위배되며 북미주에서 유럽계 정착민과 원주민 부족 사이의 장기적 권력불균형을 초래했다. 이 권력불균형은 법적·사회적으로 광범위한 함의를 가진다.

타락한 기독교발견교리 사상 때문에 식민지를 발견·정복하는 데 열광한 정착민들은 창조의 다양성과 풍성함을 축하하는데 늘상 실패했다. 정복의 열광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조의 풍성함에 반하는 잘못된 필요를 추구하는 소비주의 문화가 조성되는 토대를 제공했다. 타락 이후 인류는 창조의 풍요에 반해 우리 고집을 옹호하는 인간적 방식을 추구해 왔다. 우리가 창조에서 계속 넘쳐나오는 풍요를 바라보는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우리 가족 관계는 개인주의적 자기만족 모델에 밀려났다. 우리의 타락한 사상은 우리를 인종적 우월과 신학적 지배와 (하나님/창조는 내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므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스스로 챙기는 것을 당연시하는) 회소성 신화 등과 같은 지엽적인 담화에 빠지게 함으로써 정의와 화해와 지구보존이 심각하게 결핍된 지경까지 오게 만들었다.

사도 바울은 상호돌봄의 주제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켰다. 우리는 서로 더 견고하게 결속되어 실제로 동일한 감정을 나누기를 소원해야 한다.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온 몸이 다 아프다. 우리의 공통된 이야기는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라는 확신으로 결론이 나와 한다고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대하는 자세도 많이 바뀔 것이다. 예수께서 표현하셨듯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한복음 13:35). 그러므로 교회는 죄악·화해의 본성에 대해 씨름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발견교리가 오래된 것이고 그것에 대해 우리가 직접 책임을 질 사안이 아니긴 하지만, 기독교발견교리의 집단적 최악은 여전히 후속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교회 전체가 그 파괴의 족적에 대해 책임지고 미래 행보에 더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책임을 지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을 갱신하는, 도전적이고 소망이 넘치는 회복의 여정이다. 또한 회복은 우리의 공통된 이야기에 담긴 무섭고도 아름다운 복잡성을 아는 토대 위에서 구축된다.

북미주에서 *우리의 공통된 이야기*는 식민주의의 무서운 실재와 후속 영향까지 포함한다. 기독교발견교리의 유산은 장기간 집단죄악이 미쳐온 영향력의 한 사례다. 신학자들은 죄악이 수 세대에 걸쳐서 타락과 불의를 범하면서 어쩌면 부지불식중에 선교사역과 같은 고귀한 사명의 선한 의도마저 축소할 수 있는 심각한 도덕적 악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기독교발견교리가 끼친 비인간화·인종차별주의란 도덕적 상처는 종종 묻혀진다. 하지만 피압박자와 압제자가 협조하여 그 공유된 체험들을 폭로하고 다뤄야 한다. 특히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인간 이하로 치부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인간의 능력을 감소시키는, 내면화되고 일반화된 도덕적 상처로 고착된 어두운 아이러니와 맞서 싸워야 한다. 식민주의와 기독교발견교리는 원주민과 정착민 공동체 양측에 흔적을 남겼다. 그러므로 교회는 타락한 기독교발견교리 사상을 거부해야 할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빠른 유혹을 단연 피해야 한다.

깨어진 역사의 세대에서 돌아서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사과성명서나 역사적 교리를 거부하는 것 이상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공유된 이야기를 구축한다는 것은 성명서와 사과문이 결론이 아니라 화해를 위한 심오·난해한, *장시간 소요되는*, 궁극엔 해방을 가져올 여정을 위한 촉매제라는 뜻이다. 기독교발견교리로 말미암은 파괴의 깊은 함의를 받아들인다면, 화해의 여정에 지름길이란 없다. 기독교발견교리의 과거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잔혹한 결과가 여전히 어슬렁 거리고 있다. 하지만 이 도전적 여정은 그리스도의 몸에 희망을 준다. 그리스도 안에서 상호간 존중과 일치를 통해 원주민과 정착민이 연합한 교회는 한 몸으로 더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CRCNA와 같은 정착민 교회는 기독교발견교리의 도덕적 상처에 대해 의식적으로 신중하게 우리의 원주민 이웃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자들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교회가 원주민 부족·문화를 하등인류·퇴행문화로 치부했던 죄에 빠졌을 때 놓쳤던 분별력을 포함하고, 원주민들의 선한 영역을 가능한 한 많이 복구하기 위해 동역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 원주민의 은사를 분별·축하하는 과정은 북미주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충만과 복음의 통전성을 위해 중요한 것이다. 유럽우월주의와 혼합주의는 복음 메시지가 원주민 부족들에게 전해지는데 가장 확실한 걸림돌이 되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에 유럽인이 도착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는 사실을 존중하는, 일반은총으로 영감된 겸손이 필요하다. 게다가 타락한 유럽우월주의 사상을

거부하는 것은 원주민 부족들이 이 곳과 이 나라와 이 교회에 기여한 공헌을 표현·지지·축하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것은 교회 안에 원주민 부족들을 위한 식탁을 마련하자는 이타적 시도를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요한 17 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일치를 위해 기도하시고 요구하셨던 성격을 가진 새로운 식탁을 의미한다. 교회가 그 새 식탁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빛어지는 은총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한다.

## 타락, 제 2 부: 반성 - 미국 남서부의 CRC 역사

기독교발견교리가 CRCNA 에 미친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고자 본 대책위원회는 칼빈대학교 CRC 자료보관소에 자료조사를 위임했다. 보관소의 조사는 교회가 토지와 그 땅의 백성을 평가했던 관점과 그 관점이 선교사역을 결정한 방식에 초점을 두었다. CRC 보관자료의 기록에 따르면, 유럽계 크리스천의 우월성에 대한 기독교발견교리의 신념과 일치되게 그 땅과 그 땅의 백성들을 “취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한 타락한 사상을 교회가 수용한 사실이 나타난다. 기독교발견교리는 CRC 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바호(Navajo)족과 주니(Zuni)족을 주관하셨다는 믿음을 거부함으로써 복음을 왜곡했다. 원주민 부족들에 대한 CRC 정책과 활동은 기독교발견교리와 식민주의에 공통된 규범과 가치와 전제들에 의해서 직접 결정되었다. 그 땅의 백성과 그곳에서 사역한 선교사들을 희생시켜 가면서 말이다.

CRC 의 원주민 경험은 대부분의 미국 남서부 나바호 부족과 주니 부족에 관련된 것이다. CRC 의 선교사역은 이방인 선교 이사회(Board of Heathen Missions)가 설립된 1888 년에 시작되었다. 사우스 다코타 단기선교사역이 실패한 후, 앤드루 밴더 와겐(Andrew Vander Wagen) 목사와 허만 프릴링(Herman Fryling) 목사는 나바호 지역과 주니 지역에 선교센터를 세우기 위해 출발했다. 나바호 지역에서 선교센터를 세울 땅을 구입하고 곧이어 주니 지역에서 땅을 구입함으로써, 교단은 최초로 선교지 연속 운영을 시작했다. 미국과 캐나다의 교회 선교사역의 전형적인 모습대로, CRC 교단도 선교사역의 핵심 부분으로 기숙학교를 건립하고 운영하기 시작했다.

CRC 도 예외없이 학교운영에서 다른 교단·정부 기관들처럼 기독교발견교리의 규범에 따라 결정했다. 이것은 선교사들과 정책입안자들이 원주민 부족들과 그들을 위한 선교에 대해 논의한 태도에 나타난다. 학교 이름을 르호봇(Rehoboth)이라고 짓고 그

간판에 창세기 26:22 절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을 인용한 것만 보더라도, CRC는 식민주의와 명백한 운명론(Manifest Destiny)의 지성적 틀에 꼭 맞았다. 미국과 캐나다의 학교당국자들은 학생들의 머리를 짧게 자르고 그 전통의상을 서구식으로 대체하고 나바호식 이름을 “영국식” 이름으로 바꿨다. CRC 스태프의 말로 표현하자면 “그들에게 좋은 이름이 없었기” 때문이다. 회신물이나 출판물에 “이방인”이나 “이교도” 같은 표현들이 어지럽게 남발되었고 원주민 문화는 악마적인 것이나 유치한 것으로 치부되었다. 여기에는 문화적 동화가 원주민 부족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다. 즉 유럽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나바호족과 주니족은 그렇지 않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 남서부 지역에서 CRC가 경험한 것은 기독교발견교리가 조장한 문화 윤리(ethos)가 교회의 생활과 선교에 결정적 인자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선교사역의 추진력은, 대위임령에 의해 영감을 받긴 하지만, 복음을 신앙 만큼이나 문화에 결부시켰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CRC는 선교사의 역할이 자문화를 확산하는 것이요 선교적 성공은 나바호족과 주니족이 서구화된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이해한 것이다. 이런 자세는 교회의 사역·선교에 기본이었을 뿐만 아니라 선교 역사에 지속되었다. 선교사역의 초기 수십년 동안 이 개념들은 별로 비판받은 적이 없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경멸적인 반응이 압도적이었다.

이 정책들의 현대적 효과는 나바호족과 주니족, 정착민 모두가 겪고 있는 역사적 상처에서 여전히 느껴지고 있다. 교회도 그 상처를 가지고 사역을 했으며, 원주민 지역사회 안에선 자녀들이 부모의 본을 따르지 못하게 됨으로써 가족이 깨어진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우울증과 자기혐오를 낳았다. 또한 원주민 부족들이 상황화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경우도 많았다. 기독교를 접하는 유일한 방법이 서구문화와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정착민의 상처(settler trauma)”의 측면도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고 선한 의도를 가졌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등인간 심지어 인간이하의 수준이라고 치부한 사람 집단을 동화시키고 그 문화를 말살하는 불의한 인종차별 구조에 부지불식중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다.



그러므로 상처는 우리의 공유된 역사의 일부다. 이것은 애통과 일상적 회개, 지속적 용서·상호치유 추구를 요구한다. 그 상처는 급한 사과문이나 싸구려 은혜로 덮어버릴 수 없으며 애통을 요구한다. 화해를 향해 가는 길은 험하다. 이 관계는 하룻 밥 만에 화해되지 않을 것이다. 화해란 일회성 행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화해에는 분명한 출발점이 있지만 그 끝은 명확하지 않다. 화해는 대화로 시작하며 회복된 관계를 삶 가운데 실천할 때 마감된다. 그리고 이 치유의 출입구, 즉 이 여정의 입구는 파괴에 대한 우리의 슬픔 즉 애통과 하나님께서 치유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소망으로 시작한다.

### 타락, 제 3 부: 캐나다의 CRC 역사와 기독교발견교리

기독교발견교리는 실로 국제적 현상이다. 이 교리는 그 자체로 캐나다 역사를 결성지였으며, 캐나다 CRC 역사로 발전했다. 기독교발견교리는 1763년 영국 왕의 포고령(Royal Proclamation)에서 확정되었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 인디안 정책(Canadian Indian Policy)의 세부사항까지 결정했다. 예컨대 캐나다 최초의 수상인 존 맥도날드 경(Sir John A. MacDonald)이 원주민 부족들을 캐나다에 동화시키려는 정책을 시행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이 시도를 할 때 핵심도구는 기숙학교 제도였다. 캐나다 정부의 동화계획의 핵심 이론인 기숙학교 제도는 기독교발견교리가 제시한 문화적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 유럽계 캐나다인의 문화적 전제와 공공정책은 원주민 부족들을 그 고유 문화·언어 정체성을 말살하고 동화시킴으로써 해결해야 할 문제거리로 치부했다.

본 대책위원회의 임기 중에 캐나다는 진실과 화해 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TRC)를 통해 자체 화해절차를 시작해 왔다. 진실과 화해 위원회는 기숙학교 생존자들의 진실을 존중·기록한 과정은 경종을 울려주는 신성한 것이다. 진실과 화해 위원회가 2015년 6월에 발표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체계적인 문화말살이 행해졌고 기숙학교제도의 토대로 기독교발견교리가 구체적으로 인용되고 있다. 이러한 진실은 캐나다의 공유된 역사의 일부다. 본 대책위원회는 에드몬톤(Edmonton)에서 개최된 진실과 화해 위원회의 국가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복을 누렸다. 두 번이나 캐나다 CRC의 지도자들은 화해의 징표를 흰나무상자(Bentwood Box - 한 개의 나무를 깎고 휘어 만든 상자로서 인디언 기숙학교

생존자들에게 헌정되었다: 역주)에 넣을 수 있었다. 이것은 CRC 가 화해에 헌신하겠다는 상징적 몸짓이다. 기숙학교 제도가 확립될 때 본 교단은 캐나다에서 활동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한 자로서 물려받은 그 역사의 영향을 받으며 산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역사적 불의는 현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해결해야만 한다.

캐나다 CRC 교회들은 1968 년 캐나다 CRC 교회들의 카운실을 통해 “인디안 선교사역(Indian Missions)”에 관한 심의를 시작했다. 교단은 신속하게 원주민 부족 내 선교사역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원주민 부족들에 대한 CRC 의 역사적 어법을 버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자들”로 인정하는 표현을 담고 있다. 1974 년부터 CRC 는 도심원주민사역(Urban Aboriginal Ministries, UAMs)을 운영하면서 전방사역에서 토착적 가르침과 기독교를 통합시켜 왔다. 이러한 사역 센터들은 공동체를 구축하고 원주민들에게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식민지화·주변인화의 결과들을 해결하는 사역을 제공한다. 이 사역들은 종종 주류 교회의 소외와 의혹을 받는 시련을 겪어왔다. 그러한 의혹은 1990 년대 후반에 일어난 혼합주의 논쟁에서 강하게 표현되었다. 원주민의 문화관습에 대한 도심원주민사역의 통합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한 건의안이 총회에 제출되었고 “이 관습이 기독교 신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혼합주의에 대한 속고·연구에서 상세하게 보도된 긴장들은 복음·문화에 대한 선교학적 질문들과 씨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기독교 신앙·기도에 대한 원주민들의 표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기독교발견교리의 지속된 영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타락에서 화해로 가는 여정: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공동의 기억을 구축하기

본 대책위원회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강렬하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을 통해 축복과 도전을 모두 누렸다. 그 이야기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본 보고서에 그 전체를 실었다. 화해는 “우리의 공통된 이야기에 담긴 무섭고도 아름다운 복잡성을 깨닫는”데 달려 있다. 기독교 발견교리와 그 유산인 구조적 인종차별은 수세대에 걸쳐 중요한 이야기들을

사장시켰고 원주민 부족들의 의견과 인간성을 축소시켰다. 우리의 원주민 이웃들의 목소리가 사라지거나 희미해지고 불의가 지속된다면 살/壽[온전한 평화]은 미완성이다. 우리가 압제·소외받는 이들에게 가해진 침탈의 범위, 즉 기독교발견교리의 악영향에 대한 진/實을 알 때에만 화해는 실현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더 온전히 깨닫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치를 위해 일하려면, 아름다운 이야기든 힘겨운 이야기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원주민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그들의 실경험을 존중하는 것은 화해 여정의 핵심 부분이다. 또한 그것은 정착민들에게도 기독교발견교리와 그 유산의 하류에서 마시며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반성하는 데 중요하다. 우리의 공통된 깨어진 과거에 대해 정직하게 나눌 때 우리는 “평안의 때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엡 4:3)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각자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된다. 우리는 교회가 기독교발견교리의 유산에 관해 숨겨있던 이야기들을 듣고 존중하는 과정을 시작하도록 강권한다.

본 대책위원회의 보고서 전문에는 기독교발견교리의 영향에 대해 미국 기숙학교의 생존자 한 명과 나바호 부족의 신세대 대표들, 정착민들이 생생하게 증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본 대책위원회는 이 증언들과 다른 증언들도 들을 수 있는 영예를 누렸다. 우리는 특히 르호봇 기독교학교(Rehoboth Christian School)에서 기숙했던 예전 학생의 이야기를 듣는 영예도 누렸다. 이 특별한 이야기는 민감한 특정 사안을 배려하여 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그 기숙학교의 곤혹스러운 역사가 기독교발견교리와 CRCNA 교단에 어떻게 관련되는지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2016년 총회에서 본 보고서를 검토할 자문위원회와 그 이야기를 나눌 참이다. 우리는 역사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다.

건의 사항:

가족적인 대화 모임인 본 발견교리 대책위원회는 교회가 우리들의 공통된 이야기를,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던 이야기까지 포함하여, 공유·존중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요구하신 새로운 연합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그러므로 여러 사항들 중에서 다음 건의안을 총회에 제출한다:

- 기독교발견교리와 그 유산들이 원주민과 정착민 모두의 삶과 사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죄악이요 도덕적 상처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건의한다.
- 전교단적으로 배움과 기도, 고백, 통곡, 회개에 헌신함으로써 기독교발견교리의 유산에 대항하도록 건의한다.
- CRCNA 기관들에 지시하여 원주민 크리스천 리더들과 중요한 대화와 관계를 구축하여 건전한 선교 실천을 계획하고 발전시키고 기독교발견교리의 유산에 관한 회중의 학습 및 활동 자료들을 개발하도록 건의한다.
- CRCNA 가 유럽우월주의 세계관을 역사적으로 정당화한 사실과 그 결과 원주민 부족들에 대한 토지권리를 침탈한 사실을 인정하고 침탈 결과를 밝혀내는 조사에 계속 헌신하도록 건의한다.
- CRC 사역 안에서 기독교발견교리 유산의 이야기를 공유할 만한 안전한 자리·조치를 제공하도록 건의한다.